

# "여성이기에 가능'한 시대가 오고 있다"

[K-걸스데이]'바이오 혁신리더' 윤채옥 한양대 교수

머니투데이 세종=이동우 기자 | 입력 : 2016.05.17 06:07

이기사주소 : <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6051610085596942&type=1>

복사

"'여성이라 힘들다'가 아닌, '여성이기에 가능'한 시대가 오고 있다."



암세포 공격 치료법을 개발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 교수는 "산업현장의 변화가 여성 기술인력을 요구하고 있다"며 이같이 강조했다.

윤 교수는 "산업현장에서는 이성에 기초한 전략적인 사고 외에도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고 포용하는 섬세함, 유연성 등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력이 필요하다"며 "섬세하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여성 기술인력의 과학 및 산업현장 투입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"고 말했다.

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한다. 그는 "여성기술 인력을 '조직전략의 동반자'로서가 아닌 '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저해하는 문제'로 보는 시각이 있다"며 "단기적이고 비과학적 인식의 전환이 단 시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"고 전했다.

K-걸스데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자세를 주문했다.

윤 교수는 "어려운 환경에 대해 불평하기 보다는 극복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자신의 앞에 꿈꿔왔던 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"이라며 "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조언했다.